

#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판' 연다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12~16일 개최… 판소리·기획공연 등 53개 프로그램·122회 공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관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올해 25회차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 전통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올해 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지난 25년간 축적된 소리의 자산을 모아 미래 비전을 담아내며, 판소리와 기획공연, 월드뮤직,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53개 프로그램, 122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소리축제는 관람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판소리를 축제로 전환한다. 소리 NEXT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류와 해외 진출 기능을 강화하고, 소리프린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예술인과 도민 참여를 넓힌다.

또한 공연 규모를 지난해 101회에서 122회로 확대하고 개막식도 대형 제작공연 중심에서 축하형 개막무대로 전환해 보다 많은 관객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소리축제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축제의 정체성인 판소리와 대중성을 균형있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폭염 등 여름철 축제 운영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축제 성과와 관객 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개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축제는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는 ‘판’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기존 완창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연희와 판곡, 관객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로 선보이며, 판소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소리프린트’를 통해 신진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오늘의 시나위’, ‘판소리 X 시네마’ 등으로 전통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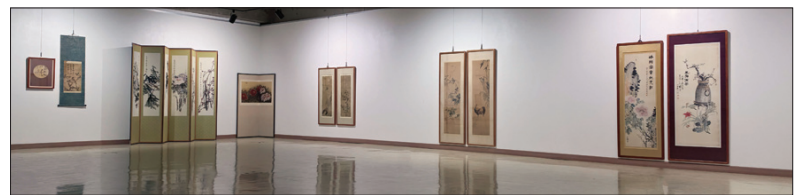
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 여성농악·고창농악·강릉단오굿 등 지역 전통예술과 함께 ‘쇼팽&아리랑’, 캐나다·인도·아프리카·중동 예술가들의 무대를 통해 세계 음악과의 만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소리초이스, 소리피칭, 소리팬투어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리프린터를 통해 전통음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선다.

전북 13개 시군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며, 어린이소리축제와 소리프린트 등 생활권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힌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판소리를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AI 기반 판소리 영상을 제작해 출품할 수 있다. 또한 소리프린트는 전북 곳곳의 일상 공간과 관광지를 무대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영역을 도시 전역으로 확장한다.

신원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5회차를 맞은 소리축제는 전북의 문화적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소리축제가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근대 거장들 화조화’ 한자리에

미술관 솔, 7월 24일까지 전시회 개최

전북의 근대 한국화 계보를 한눈에 조망하는 근대 거장들의 화조화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경운)과 미술관 솔(회장 서정만)이 주관하는 2026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 ‘우리 꽃길만 곁어요-근대 거장들의 화조화’가 2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살롱드 완산’을 통해 전북 서양화의 역사를 조명했던 미술관 솔이 두 번째 전북 미술사 탐구 프로젝트로 마련한 것으로, 근대 한국화 거장들의 화조화 작품을 중심으로 전북 미술의 뿌리와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에서는 꽃과 새, 나비 등을 소재로 한 화조화를 통해 한국화 특유의 정서와 미학을 선보인다.

화조화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관람객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돕는 예술 장르로 평가받는다. 먹과 물, 종이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은은한 색감과 여백의 미는 빠르게 소비되는 현대 문화와 달리 천천히 머물며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 화단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폭넓게 소개한다. 조선 후기 화가 장승업을 시작으로 안중식, 조석진, 이도영, 김규진 등이 참여했던 근대 서화협회 계열 작품을 비롯해 이상범, 김은호, 노수현, 이용우 등 한국화 거장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전북 출신 화가 나상목, 조종태, 김종현, 남궁훈, 심은택, 방의걸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화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채용신, 최석환, 이정직, 박호병, 김희순, 이광열, 최장균 등 전북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특히 전남 운림산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종화 계열의 허련, 허형, 허백련, 허맹면, 허건 등의 작품도 함께 선보여 지역 화파의 특징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람객들은 꽃 그림이 그려진 에코백을 자신만의 색으로 채색하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이꽃을 만들어 포토존을 꾸미고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시는 전주시 경원동 소재 미술관 솔(전화 063-286-0567)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전시 기간 동안 후관람 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관람과 체험은 모두 무료다. /이만호 기자

## 관객·연주자 함께 만드는 무대 펼쳐진다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27일 특별 공연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 개최

오는 27일 오후 5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특별 공연 ‘도랑파랑 춤추는 발가락’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주최·후원하고 완주군과 ‘예술담은나라’가 주관하는 관객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지역 우수 공연 유치 프로그램으로, 관객이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무대의 일부가 되어 예술인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은 이대정랑 지휘와 관승연 연출 아래

진행된다.

무대에는 국내외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을 보유한 바리톤 석성근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최아현, 플루티스트 김정은, 색소포니스트 손주앙이 출연한다.

또한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함께 참여해 약 100분 동안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완성된 무대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예술가들의 삶, 철학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편 공연 입장료는 일반 1만원, 초·중·고등학생과 65세 이상은 5000원이며 인터넷



예매 시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원주=염재복 기자

## 아트컴퍼니 두루, 세대 통합 문화예술교육 1기 순항... 2기 참여자 모집

아트컴퍼니 두루가 운영하는 ‘202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1기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프로그램은 20~30세대와 40대 이상 참여자들이 함께 연극과 심리 소통 활동에 참여하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한 팀을 이뤄 대본 리딩, 역할 바꾸기, 감정 표현 훈련, 공연 관람, 낭독극 발표 등에 참여하며 서로 다른 세대의 삶과 언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극 수업을 넘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본을 함께 읽고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연기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고정관념을 허물고 관계의 언어를 새롭게 배우도록 구성됐다.

현재 모집 중인 2기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극과 심리 소통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경험하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삼근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